

“대구 불교 위상 되찾겠다”

12월 1일 대구불교총연합회 창립 기념대법회

개신교의 불교편취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 불교계가 승속과 종단을 조율해 하나로 뭉친다.

대구 동화사를 비롯한 조계종과 천태종, 대교종, 진각종 등 대구지역 16개 종단 사찰과 신행단체들은 12월 1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불교총연합회’ 창립 기념대법회를 봉행한다.

‘대구불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5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회장 선출과 연합회 정관이 확정된다. 또, 문화공

연과 개신교의 불교편취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결의하는 공동성명서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대구 지역 불교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개신교의 공세로 흔들리고 있는 교권을 수호하고, 대구불교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민족의 역사문화 속에 찬란히 빛나는 대구불교의 위상을 되찾고, 한국불교의 중흥을 대구가 선도하기 위해 사부대중이 하나되는 조력을 결성하고자 나섰다”고 말했다.

민족문화수호를위한비상대책

위원회 집행위원장 정필 스님은 “개신교 일부 목사들의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불교편취는 불교가 대등한 힘을 갖지 못하는 한 계속될 것”이라면서 “사부대중을 하나로 묶는 불교계의 연합단체를 통해 개신교 측에 강한 경각심을 심어주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구불교총연합회는 앞으로 불교발전과 불교역사문화의 창달, 불교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불교 아이템을 통한 공익적 수익모델 창출 등 다각적인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손범천 대구지사장



자승 총무원장 연평도 전사자 위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스님 40여 명은 11월 26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빈소가 마련된 성남 국군수도병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웃종교와 무교였던 고인들의 영정 앞에 헌화·헌향 후 불교의식 대신 묵념했다. 자승 스님은 빈소를 지키는 유가족들을 만나 일일이 손을 잡으며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 만 힘내달라”고 위로했다.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은 “국민 모두가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애국정신을 잊지 않고 나라를 지켜야한다”고 애도했다. 이날 조문에는 총무원 재무부장 성철 스님, 사회부장 혜경 스님, 호법부장 상운 스님, 사서실장 경우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 스님,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과 중앙총회 사무처장 성효 스님, 중앙총회의원 정범 스님,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등이 참석했다. 한편, 조계사는 대웅전에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이들의 분향소를 마련하고 신도·시민의 조문을 받고 있다. 조동현 기자

“관광법이 템플스테이 가로막는다”

김형남 변호사, 법 개정해 특수성 반영해야

“템플스테이의 공익적 성격과 전통문화 체험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 관광진흥법은 개정돼야 한다.”

김형남 신아법무법인 변호사는 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만)이 11월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템플스테이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템플스테이 관계법령인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템플스테이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형남 변호사는 “현 관광진흥법은 전통사찰이 진행되는 복합적인 체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템플스테이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전통문화가 관광자원이 되고, 이것을 전통문화 형성의 주체인 비영리단체가 체험형 형태로 보급하는 내용의 관광을 애초에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광진흥법 제2조는 제1호에서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

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또 제2호에서는 ‘관광사업이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에 명시된 관광사업은 영리성을 띠는 사업으로 체험을 주 목적으로 비영리 성격인 템플스테이 사업, 또 그 운영주체인 전통사찰에 대한 법령으로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남 변호사는 “템플스테이는 전통문화자원 개발과 진흥추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며 “관계법령에서 관광사업의 의미를 관광진흥을 꾀할 수 있는 비영리사업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법령의 관광사업의 종류에 전통문화체험사업을 규정하고,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전통사찰 문화체험사업을 명기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발제자인 전병길 동국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템플스테이 사업이 단계적 로드맵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 방향으로 △조직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지자체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또 양상현 순천향대 건축학과 교수와 이소윤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박사는 “스님의 청정한 삶과 수행에 기반한 건강 및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화된 치유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상현 교수는 이날 치유시설 조감도 및 건립계획안을 소개하고 관련 부처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템플스테이 세미나에는 불교문화사업단장 정만 스님과 이창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한 템플스테이 사업 관계자들과 조운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만순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세미나 발제를 경청했다.

정만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불교 문화체험을 통해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과 가치를 내외적으로 알려준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콘텐츠”라며 “이제 다시 한 번 템플스테이의 지나온 길을 보고 더 나은 템플스테이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창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자리 잡은 사찰은 한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이라며 “2009년 OECD 관광위원회의 <The Impact of Culture on Tourism> 연구결과에 한국 템플스테이가 가장 매력적인 5가지 문화관광 콘텐츠 중 하나로 선정됐듯 템플스테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며 관련 콘텐츠 개발에 더욱 나설 것을 밝혔다.

한편, 현대기독교고역사연구소는 11월 23일 서울신학대에서 ‘정부의 종교문화정책 현황과 기독교의 대응’ 세미나를 열고 개신교계도 연합해 대정부 정책기획단을 조직하자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전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 이: 120cm
- 원통폭: 45cm
- 밑바닥폭: 30cm
- 무 게: 25kg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100자 뉴스

실상사 재가불자 겨울학림 개원

남원 실상사(주지 해강)는 12월 25~30일, 1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재가불자 겨울학림을 개최한다. 이번 겨울학림은 열반경을 주제로 재가자들이 강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불과 발우공양제, 생명평화100배서원절명상, 지리산순김명상 등도 진행된 다. (063)636-3031 노덕현 기자

김천시 불교시설 여성문제 적극 지원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진오)는 11월 12, 19일 ‘맞벌이 여성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주제로 맞벌이 여성들을 위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코칭,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사례, 재테크 등을 교육했다. 김천시 다문화가족센터(센터장 진오)에서는 15~19일 결혼이주여성들의 자기 이해, 자신감 향상, 생애 설계, 구직기술 향상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박기범 기자

황우석 박사 복제견 한국불교대학에 기증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황우석 박사팀이 복제한 진돗개 2마리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 11월 24일 기증됐다. 황우석 박사는 “검찰 조사 당시 대관음사 신도들이 줄기세포 연구 재개를 호소하는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해 힘든 시절을 이겨냈다”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복제견을 기증했다. 기증된 복제견은 용, 아현이란 이름의 2개월 된 수컷과 암컷 2마리이다. 손범천 대구지사장

상인 스님 ‘소박한 적멸’ 출판기념회

군위 인각사 주지를 살며 <삼국유사> 재조명에 앞장섰던 상인 스님이 사문 생활의 모습과 수행의 일화를 담은 책 <소박한 적멸>을 펴냈다.

스님은 책의 출간을 기념해 11월 22일 대구 수성구 뉴영남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책에는 1969년 출가한 스님의 40년 수행의 모습이 평이하고 단아한 문체로 기록돼 있다. 또, 어려운 경전 내용을 나름의 방법으로 쉽게 해석해 정리한 점이 돋보인다. 손범천 대구지사장

진각종 스리랑카에 외국어학교 개원

진각회당외국어학교가 스리랑카 JGO네곰보센터 내에 건립돼 201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진각종(총리원장 혜정 정사)은 11월 16일 스리랑카 JGO네곰보센터에서 진각회당외국어학교 개원불사를 봉행했다.

혜정 정사는 “용맹정진으로 회당종조의 무진서원과 위업을 기승 속에 깊이 되새겨 새롭게 지혜의 빛을 밝혀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는 1층 교실과 방사를 건립한 1차 개원으로 3년 간 500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9,663㎡ 규모의 3층 건물이 추가 건립될 계획이다. 교사 외에도 도서관, 과학실 등의 부대시설이 차례로 들어선다.

2011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을 받을 예정으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영어교육 교사 양성프로그램,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센터, 지역공동체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원불사에는 진각종 원로스승 일성화 전수와 지혜심 전수를 비롯해 통리원 문화사회부장, 배도순 위덕대 총장, 임선교 WFB한국본부 명예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11월 16일 개원한 진각회당외국어학교